

권두 인터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특집

2023년 결산 우리가 걸어온 시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

민족화해

125 vol
2023.11+12



민족화해

민족화해 2023년 11+12월호(격월간, 통권 125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3년 11월 15일 발행인 손명원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이승현 이예정 임상범 전영선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68,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지원프린스 02-2272-5562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Contents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남북두절 2백여 일...

04

포토에세이 | 조천현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06

권두 인터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 편집부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 김민아

18

특집 - 2023년 결산 우리가 걸어온 시간

1. 북의 대남기피증, 틈새외교 타고
새해에도 심화될까 | 정대진
2.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처 가능한
국익 중심 외교 기대한다 | 왕선택

26

이슈 앤 포커스 | 정영교
통일부, 통일·대북정책 역할 멈추지 말아야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 편집부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

32

우리의 역사 | 노태구
독립운동가 강재 신숙의 일생

34

청년칼럼 | 김경윤
격변하는 남북관계, 민화협의 방향과 역할

36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 편집부
신미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상임대표

40

민족화해 네트워크

- ① 민화협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날
“민족화해를 넘어 민족화합으로!” | 편집부
- ② 민화협, 상임의장 단체 예방 | 편집부
- ③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
2023 제5회 한반도 평화통일음악회 | 김태우
- ④ 2023 롯데장학재단-민화협-북한연구학회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학술심포지엄 | 김민아
- ⑤ 독일 베를린지회 온대야 세 번째
“독일 통일 이후 국경 분단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와 기억” | 채민진

50

청년 리포트 | 문예찬
“더 큰 평화, 청년 연대의 힘으로 나아가자!”

52

새로운 시선 ⑩ | 김한근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 분석 연구

56

문화 모니터
영화 속 북한 이야기 ②9 | 전영선
문학 속 통일미래 ④0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④9 | 이상현

66

평화를 만나는 기행 ⑩ | 이영동
경기도 연천 평화기행 두 번째 이야기

70

궁금한 책

72

민화협 사서함

125 vol
2023.11+12



Cover Story

2023년, 민화협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대내외적으로 민화협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한다. “민족화해를 넘어 민족화합으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비전 2023>을 선포했다. 회원단체들과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자 한다.

남북두절 2백여 일...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2023년도 저물어 간다. 항상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심경은 아쉽고 또 착잡하다. 모두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대목만 떠오른다. 우리 <민족화해>도 그런 심경이다. 그러나 송년호라는 것 때문의 쓸쓸함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남북관계의 현실,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오는 쓸쓸함이 더 크다. <민족화해> 이번호에는 올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마무리하는 특집을 기획했다. 내용 모두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퇴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 올해 남북관계는 화해보다 긴장, 평화보다 갈등으로 역주행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역주행했다.

북은 여전히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였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명목상 위성 개발이지만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기야 북은 핵무기는 물론 핵추진잠수함까지 개발할 의사를 밝혔고,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정책 법령'까지 채택했다. 핵무력의 공식화다.

우리도 화해보다 증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반

도 비핵화 포기, 즉 1991년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자거나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아예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거론하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후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내용은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군 당국은 우리가 손해라는데, 넓은 시야로 보면 그나마 이룩한 민족화해의 소중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이다.

올 한 해는 우리 제호 <민족화해>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기보다 멀어져 간 한 해였다. 남북 모두 그리 역주행으로 달렸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남북간 그 어떠한 연락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남북두절' 시대를 맞고 있다. 얼마 전 민화협 후원의 밤에 참석한 한 원로인사는 최근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남북이 꼭 막힌 이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가"라고 한탄했다.

남북두절 시대가 낳은 사례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 해군이 기관고장으로 10일 동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의 어선을 10월 29일 발견하고 북으로 돌려보냈다. 발견된 북측 선원들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면서 조난된 이 배를 북이 구조할 수 있도록 연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북의 공식·비공식 통신라인이 모두 막혀있었다. 결국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했다. 그런데도 북은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했고, 그제서야 북이 경비정 등을 보내 표류 중이던 배를 구조했다는 것이다.

과거 남북 간에는 청와대 핫라인, 군 직통 전화와 팩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회선 등 다양한 통신채널이 있었다. 심지어 통일부에는 남북이 영상회의까지 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까지 만들어 뒀다. 이런 다양한 통신채널을 통해 당국은 매일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와 오후 4시 업무마감 통화를 했다.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도 이뤄졌다. 남북관계에 따라 가끔 불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연락망은 꾸준히 살아 있었다.

그러나 올 4월부터 모든 연락망이 끊겼다. 고장 등 기술적 문제가 아닌, 북이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북의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북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다. 과거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이 두절된 경우가 있었다.

이제 남북 간에는 아무런 연락망이 없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무력수단이 집중돼 있는 한반도에 최소한의 소통수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역사에서 보듯이 전쟁이란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 충돌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로 최소한의 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파국과 공멸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인 것이다. 일상적 대화는 하지 않더라도 해상 조난 사고 등을 대비해 최소한의 연락채널은 유지돼야 한다. 국제상선통신망이나 구조통신망을 개방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남북은 최소한의 연락채널조차 사라진 '남북두절' 즉 감금이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스러웠으면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사태를 공개하고, 통일부가 별도 입장문을 냈을까. 통일부는 그 남북두절 시간이 210일이라고 했다.(11월 2일 기준) 지금은 남북두절 시간이 더 길어졌을 것이다. 남북 통신 두절로 우리 측도 불편했지만, 북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앞서 북 어선의 표류에서 보듯이 자국민을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신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북도 절감할 것이다.

그렇다.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창구가 막힌 지금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인가를 묻고 따지지 말자.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불편하니 일단 최소한 연락채널을 다시 열고 그 다음에 따지면 된다. 뭐가 아쉬웠고 어떤 대목이 기분이 나빴는지 일단 소통창구를 열고 따지면 된다. 남과 북에 "최소한의 연락망 스위치를 켜라"고 호소한다. 📞

36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자강도 중강군 호화노동자구 3.5청년광산

구름과 강과 바람

구름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바람이 흐릅니다
시간도 흐릅니다
몸은 머물러 있어도
구름과 강과 바람을
가슴에 담아냅니다
지나고 나면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김 천 식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통일의 DNA 가진 한민족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족주의자’이며, 통일외지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28년간 통일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남북회담운영부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및 통일부차관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을 기초하고 추진하여 통일정책의 기틀을 잡았다. 그런 그가 퇴임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쓴 책이 <통일국가론>이었다. 그에게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한민족의 혼을 버리는 것과 같다. 김 원장은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대표를 맡아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0월 31일 서울 반포에 위치한 통일연구원에서 김천식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편집부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 지난 7월 20일 제19대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 어느 새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통일을 위한 여러 사안들을 연구합니다. 그 방향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입니다. 우선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 연구원의 표어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 정세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Q |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생각이신지요?

상황이 어떠한든 우리의 사명은 그대로입니다. 통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했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또 통일된 국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일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돌출했는데 바로 북한 핵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뢰든 협력이든 평화든 어렵기 때문에, 비핵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세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통일 이후에 국가 통합을 위한 과제입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 국가통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과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북한 실태나 정세 등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언을 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연구의 결과를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자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해야 하는 이유

Q | 민화협 통일공감포럼의 대표를 맡아 수차례 정책포럼을 이끌며 민간통일운동에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수차례 포럼을 진행하시며,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과제를 부정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늘 해오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분단질서는 우리 스



김전식 통일연구원 원장이 11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 대진단: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제공)

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 남들이 강요한 질서입니다. 타의에 의해 강요된 질서 속에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질서에 안주하는 것은 노예의 사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이 통일국가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국민과 민족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한 민족이 두 개의 국가가 된다든지,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DNA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 그러면서 외부의 침략을 막고 우리 내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본래 우리 모습이고 그런 통일된 나라로서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통일해야 합니다.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 얽매어 있는 부자유로부터 다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분단 때문에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념 갈등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굴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 동포 2500만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그만큼 나 역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8천만 모두의 자유를 위해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큰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를 위한 통일입니다. 한반도는 본래 한 덩어리고, 2개 이상의 나라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습니다. 모두가 산과 들과 강으로 연결돼 있고, 사람들도 같고 기후도 비슷하고 문화도 같습니다. 과거 역사를 봐도 이 땅에 2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했을 때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니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통일국가가 있을 때 평화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2개 이상의 나라가 있으면 외세가 개입해서 분쟁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존엄을 위한 통일입니다. 타의에 의한 삶이 아닌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단을 끝내지 못하고 남북이 갈등을 이어오고 있으니, 주변국들이 우리를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고위 관리에게 중국이 북한을 티베트화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친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번영을 위한 통일입니다.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나니 국토의 완전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니 한반도의 중요 부인들이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한반도 중앙이 남북을 잇는 가장 번성하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경제 규모 역시 커지게 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고, 국가 경제 운영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통일을 통해 그러한 번영을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북한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첨단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경제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상호 협력해 경제를 번영시킬 수 있고, 한반도가 비로소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 지역이 됩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최소 30년 이상 고도성장이 가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이 바로 제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들입니다.

Q | 오랫동안 통일부에서 근무하시며 대북정책 입안

에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핵무력을 통해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난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바로 핵으로 응징해서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선불리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북한 스스로 핵무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히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져 체제의 안정도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실질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국제 정세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냉전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체제의 전쟁이고,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세력이 부딪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경제력을 키우고 민주화와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입니다.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파괴되거나 위협받으면 우리의 국익도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

의적 세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방국가,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 포기할 수 없어

Q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현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북핵 억제에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018년 말부터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야기가 나오다 말고, 평양 예술단의 방문도 합의되었는데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시작했고 일체의 대화를 끊고 결국 남북연락사무소마저 폭파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너무 저자세라는 국민들의 이야기까지 들어가며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북한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보다는 핵을 완성해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방향으로만 일관했습니다. 현 정부가 대화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일체 응하지 않기에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단계적 해법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천식 원장은 자유주의국가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나오면 곧바로 우리가 초보적인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문에 저는 시간을 더 가지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봐야 북한은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약한 모습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는 언제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현재 북한도 상황이 쉽지 않기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대화를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에 의한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핵으

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Q | 2024년 새해 사업 계획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북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자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총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에 가능한 사업은 아닙니다. 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 북한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과 국민들에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 연구에 대한 심화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 체제이지만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존엄,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법치주의, 의회주의와 다원주의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이기에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없으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통일과 4차 산업혁명의 만남 청년 세대 위한 ‘기회의 창’ 될 것

지난 10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1년 동안 무탈하게 임기를 소화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도, 또 남은 임기 중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정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 원장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일교육을 이야기한다.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청년들을 가슴 설레게 할 통일교육은 무엇일까. 10월 23일 서울 수유리에 위치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이인배 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대담 및 글 김민아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어느 새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선 1년 동안 무탈하게 맡은 임기를 보냈다는 점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85만 명의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 20여 곳, 초·중·고교가 32곳입니다. 전국에 있는 통일교육장인 통일관 13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의 수도 많고, 또 국민을 직접 만나는 기관이기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1년을 지내왔다는 것이 먼저 감사한 것 같습니다.

Q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은 무엇이었는지요?

‘헌법, 미래, 청년’의 3개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통일교육 기본교재 제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년 2만 5천 부 정도 인쇄해 전국에 배포합니다. 준교과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선 대학 등에서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교재입니다.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로 나누어 발간하는데, 제가 취임 후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오게 되어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헌법정신’에 입각해 만들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4조, 즉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다행히 언론의 반응이나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일대한민국의 운영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의 방식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통일을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천착해 온 것도 미래학이기에 상상력을 통해 통일에 접근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두 번의 메타버스 활용 사업을 진행했는데, '메타버스를 통한 통일 한반도 여행'과 '메타버스로 다시 찾은 북녘 내 고향'입니다. 통일 한반도 여행은 메타버스를 이용해 북한의 5개 지역을 가상 체험하는 것으로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한편 '메타버스로 다시 찾은 북녘 내 고향'은 지난 9월 27일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개통했습니다. 현재 불행히도 남북 간 대화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산가족의 아픔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자 생각한 것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고향 체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이산가족 세 분의 고향 마을을 재현하고, 세 분의 고향에서의 추억과 이산의 아픔을 이용자가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 게임 형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고향마을 공간 구현은 이산가족 사연자의 진술과 스케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전문 3D툴로 제작해 사실감 높은 3D 그래픽으로 제작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이인배 원장은 거대담론 중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을 구현해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나마 고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혹은 반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역대 정부의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교육원의 가장 큰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교육원의 예쁜 잔디밭에서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 글램핑을 진행한 것입니다. 편하게 쉬고, 즐겁게 놀면서 몇 시간 정도 통일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봄과 가을 두 번 진행했는데, '아, 통일 이야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나눌 수도 있구나' 생각

했습니다.

저는 과거와는 다른 교육 방식의 변화, 콘텐츠와 계기의 변화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차곡차곡 경험과 콘텐츠를 쌓아가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향 소통 가능한 통일교육

Q | 특히 청년세대의 통일 의식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청년세대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공식적인 논문 등이 아닌, 그들의 감정을 즉각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댓글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표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비하 혹은 적대적 의식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북한에서 2천500만이 내려오면 좋겠냐'는 식입니다.

또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더 도와라'고 합니다.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국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적대감이 더욱 커진 것 같고, 그러다보니 '과연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살 민족인가'라는 감정을 비공식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청년들이 처해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주거, 취업, 결혼 등 본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더 통제 불가능한 통일이 갑자기 이뤄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당장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부딪치고 있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에 통일이라는 거대담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입니다.

Q |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 대상 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거대담론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북한문제, 통일문제를 민족적, 국가적 차원으로 봐야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적어도 청년들에게 다가갈 때는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언뜻 사소해 보일지라도 청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해 통일에 대한 경쾌하고 발랄한 생각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플랫폼도 보다 소프트한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통일 콘텐츠를 애니메이션화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탑재해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Q | 올 4월 <한반도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열린책들)을 발간하셨습니다. 책을 통해 두 개의 특이점을 통일이라는 새로운 세계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미래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란 '통일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결국 '통일 청사진의 토대는 자유민주주의'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두 개의 미래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미래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할 미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화할 미래에 대해 천착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인간의 삶과 소통구조, 수입 구조 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언젠가 4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통일이라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두 개의 미래에 대해 따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제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가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통일담론과 4

국립통일교육원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8월과 9월 '통일 문예 클래스'를 개최했다. '글쓰기'와 '음악(보컬과 작곡)' 두 부문에서 강좌를 열면서, 국립통일교육원장과 탈북민 강사의 '자유·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도 함께 했다. (국립통일교육원 제공)



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미래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 수 십 년 전의 통일담론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기차타고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등입니다. 이러한 담론으로 과연 지금 우리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미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이 통일과 접목되면 얼마나 신나게 작동될지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고민한 것입니다.

책을 낸 후 지금까지 스무 번 정도 강연을 했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책에는 안 다루었지만 AI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격차입니다. 얼마 전 찾아보니 북한의 인터넷 사

용률이 0.07%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가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AI가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



국립통일교육원은 9월 22일 '2023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 결선을 울산 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동요제에서는 '너와 내가 만나면'(팀명 '친구사이')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국립통일교육원 유튜브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국립통일교육원 제공)

일에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는지, 그 안에서 청년들이 어떠한 아이템을 적용시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통일이 아닌, 가슴 뛰는 통일,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통일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원론적이지만 인간 본성을 가장 잘 포섭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기심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정치공동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기심을 적극 수용해서 발전의 동력으로 흡수해내는 체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확산, 적용이 가능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국제화 위해 노력할 것

Q | 끝으로 2024년 사업 계획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국제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중에는 "(미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의 의지를 국제적 지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 역시 주요 행사에 각국 대사관을 초청해 '국제적 행사'의 성격을 갖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결정적인 시점이 올 때 세계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과연 통일의 준비가 되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때 우리를 믿고 응원해줄 수 있는 세계인들이 보다 많아지도록, 우리의 통일 의지, 능력을 믿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준비가 아닐까요. 🌐

1

2023년 결산 우리가 걸어온 시간

북의 대남기피증, 틈새외교 타고 새해에도 심화될까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로(북러) 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 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

올해 1월 평양에서 절량세대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평양 각 구역 당 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성원들이 식량이 떨어진 세대들을 돌며 가마뚜껑도 열어보고 무슨 밥과 반찬을 먹었는지 조사한다는 전언이었다. 2022년 12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평양시 당 책임비서로 컴백한 김수길은 평양 시내 절량세대를 철저히 파악하여 10일치 식량을 긴급 지원하라는 새해 벽두에 내린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평양에서조차 10세대 중 4세대가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평양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다.

식량난 이어 ‘불균형 영양실조’ 북한 외교

해외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하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올해 1월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 North’는 북한 내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8 North’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미 농무부(USDA) 자료를 종합하여 북한의 식량공급량을 추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0~21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50만여 톤 가량을 밑돌았다. 이는 1996~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 연말 한국 정부 통계도 북한의 식량난을 지적했다. 농업진흥청은 2022년 북한의 식량생산을 총 451만 톤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1년도 469만 톤보다 18만 톤(3.8%)이 감소한 수치였다. 올해 초 북한 식량난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다.

연초에 북한 식량난 소식에 이어 연말로 접어들어 올해 11월에는 재정난으로 북한이 해외공관들을 잇달아 폐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하여 북한의 재외공관은 53개에서 40개로 줄어들었다. 북한이 159개국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재외공관을 3분의 1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7월 27일 자신들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북·중·러 공조를 과시하고,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5박6일 방문하며 정상외교를 펼친 점에 비하면 북한 외교는 불균형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도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를 계속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9월 13일까지 총 23회 발사했고, 핵어뢰 수중드론도 3차례 발사했다.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있었다. 4월에는 화성-18형 고체형 연료 ICBM과 화산-31 신형 핵탄두도 선보였다. 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폐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견재하며 핵능력 건설에 있어서 자기들 시간표대로 간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올해 4월 26일 한미정상이 워싱턴선언을 발표하여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대북 확장억제가 한층 강화되자 북한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정신을 발표하며 북한 핵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약속하자, 8월 31일에 보란 듯이 한국에 대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에서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핵무력의 고도화를 명문화

하여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4일에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략 보고서를 지목하며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10월 26일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10월 28일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남북 특수관계 부정하며 틈새외교 몰두

북한은 핵능력을 기초로 대남·대미·대국제사회 압박을 계속하며 ‘신냉전’ 프레임에 편승, 특히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틈새외교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서 남한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김여정은 지난 7월 10일과 11일에 연달아 발표한 대미·대남 비난 담화에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도 7월 27일 전승절 기념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8월 27일 해군사령부 방문연설에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작년 8월 18일 김여정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한 연장선에서 올해는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남한을 더욱 깎아내리고 아예 별개의 나라처럼 취급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 사이의 특수관계 이음새도 원

천부정하며 대결구도의 틈을 더욱 벌리고 그 틈새에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불균형 외교이자 장기적으로 외통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우선 지금은 남한과 절연하고 핵협상을 고리로 통미봉남(通美封南)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위협에 비례해 한층 강화되고 있어 북한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미국도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 두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도 강행하며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유의미한 대화를 실제 고려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비핵화 국면이 전개되고 있을 때였다. 전면적인 위기 고조와 긴장 국면 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었는데 현 시기에서는 7차 핵실험 정도의 메가톤급 충격이 아니고서는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요인은 적어 보인다.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팅(derisking)으로 논의의 축이 옮겨진 미중 경쟁관계 하에서 중국이 북한 7차 핵실험을 용인하며 미중관계에서 복잡한 함수를 더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 국내 부채문제나 실업률 등 경제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외적으로 부담을 지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북한도 이제 조금씩 재개되기 시작한 중국과의 교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 판을 깨는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내년도 미 대선 결과를 관망하고 이후 판세를 다시 기획해

봐야 하는 2024년과 그 이후를 맞이할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부터 요구하고 있는 제재완화를 포함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답은 수년째 듣지 못한 채 계속 자력갱생을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간을 더 보내야만 할 것 같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를 통해 잠시 숨통을 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북러 거래구조가 ‘현찰 대 어음 거래’ 양상이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상황도 전개될지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이 100만 발에 달하며 러시아가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현찰성 포탄은 러시아에 지급된 것이다. 그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은 정찰위성 관련 기술지원이라는 ‘어음’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고,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확률이 높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자문의 수준과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성을 운용하고 위성 5~6기 이상 추가발사를 통해 실전 활용 가능한 정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북한이 과연 자체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러시아가 지원해 준다면 과연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계속 협조해 줄 수 있을까? 북한 스스로도 자기들의 장래를 놓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문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스스로 변화 않으면 북 외통수 빠질 것

북한의 틈새외교가 외통수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대안 없는 도발적 행동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출구와 대안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 압도적인 국력으로 대북 억제력은 유지하되 강경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막다른 골목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은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심한 대남기피증으로 직접 남한 손을 잡기 어려워 보이면 국제무대에서라도 인류 공동의 현안을 놓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인도적 위기의 해소,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 같은, 이제는 현대 고전처럼 되어버린 분야에서 아직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북한과의 접촉과 협력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얼룩진 지구촌이 2024년에는 평화적 전환을 이루고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

정대진은 연세대학교에서 통일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교류팀장을 거쳐 현재 원주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 강원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2

2023년 결산 우리가 걸어온 시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처 가능한 국익 중심 외교 기대한다

왕선택 민화협 정책위원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민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25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연합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의 핵선제공격 위협 등 대내외적 안보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평가가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위협이 심각하게 증폭했고, 안보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대된 만큼 상응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체 구축, 나토(NATO)와 협력 등을 추진한 것은 국민적 안보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을 겨냥한 압박 조치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도발적 무력시위와 핵선제공격 위협 증대로 이어졌다. 한러관계도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더욱 악화했다.

한중관계도 소통과 대화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 관행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체류했던 탈북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지난 8월 이후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체제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및 첨단 기술

지원을 시사하고 있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협력이 오히려 강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외교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외교안보 환경은 악화하고 있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안보 딜레마 심화 해소 필요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면, 당파적 접근법, 국익과 동떨어진 외교안보 전략, 최고 지도자 리스크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당파적 접근법을 채택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대화와 협상 등 진보 진영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온건 정책을 가짜 평화로 매도하는 등 과격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제재와 압박 등 강경 정책에만 의지하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또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못하는 자승자박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친중 경향이 있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한중관계는 정상화돼야 하고,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 대화와 협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노력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최상급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

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북한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에서 기념비적 성과를 보여준 회담이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 강화에서 대부분의 구체적 사안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달한 장면은 한미동맹 역사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 차원으로 분석하면 윤석열 정부는 결합이 많은 외교안보 전략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적 지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인태전략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국익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징으로 세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첫째, 해양국과 대륙국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 해륙국이라는 점, 둘째, 분단국, 셋째, 개방적 통상국가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태평양 연안 국가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나라다. 동시에 한국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 중국은 물론 몽골, 베트남,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이웃 국가로서

역사적 경험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과 연대 네트워크에 각각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분단국이라는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후원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중국과 최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지난 8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규모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는 30여 년 동안 유지돼오던 한중간 협력 체제가 붕괴됐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북한과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시사한 것은 한러 관계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방형 통상국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대한민국의 추가적 경제 발전을 위해 각각 결정적인 장점을 가진 나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통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자원 대국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첨단 기술의 보고이며 에너지 자원 대국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저임금 고효율 노동자 수백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적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어느 시대나 나라에서도 최고 지도자 리스크는

항시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도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를 자극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말실수를 너무 자주 범했다. 올해 초 UAE 방문에서 '이란은 UAE 적국'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이 독선·독단·독주 등 3독 외교를 진행하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 및 배상 조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한일관계 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한 사례를 돌이켜 볼 수 있다. 개인적 존재감 과시에 집중하는 허세 외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국민방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국가에서 국민방문은 허례허식으로 간주되는 절차고, 무리해서 국민방문을 하게 되면 상대국에 양보를 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대통령 정상 외교 상황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이 과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점도 국익 증진을 방해하는 허세 외교 사례로 볼 수 있다.

초당적 실리외교 절실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국익 손실 방향에서 국익 증대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원인과 배경에 해당하는 당파적 접근, 결합이 많은 외교안보 전략, 최고 지도자 리스크 부분에서 접근법을 변경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당파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접근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 수단은 획기적

으로 다양해지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방한 외교안보 전략 대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전략 수립과 국익 외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증진하면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도 대화와 소통 채널을 유지, 관리하는 균형 외교 및 헛징 외교가 절실하다. 최고 지도자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외교에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원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허세 외교는 대통령 퇴임 이후 조롱과 비난의 빌미만 되고, 국익 증진이나 개인의 외교적 업적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과 여론을 무시한 독선·독단·독주 외교보다는 외교 전문가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 외교 활동에서 중심이 아니라 조력자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

왕선택은 YTN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문기자를 지냈고, 북한대학 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8월 퇴직 이후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 단행한 통일부 통일·대북정책 역할 멈추지 말아야

정영교 <중앙일보>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내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가 전체 인력의 13%에 달하는 81명을 줄이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한 지 두 달여가 흘렀다. 북한인권, 정보분석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상황으로 정책 수요가 감소한 교류협력, 남북회담 등의 분야는 통합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설계했다는 게 통일부가 조직개편에 맞춰 지난 9월 8일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및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조직개편은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교류

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 등 4개 조직은 국장급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고 통일정책실 아래 있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으로 분리·신설하는 등 본부 조직을 기존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감축하는 게 골자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시 '추진단' 등의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통일부는 남북 회담이나 교류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직 통일부 출신 관료 등을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교류·협력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 축소가 궁극적으로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관 직속으로 남북자·국군포로·역류자 문제를 다루는 '남북자대책팀'을 꾸렸다는 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관련 단체 및 가족과 차례로 직접 면담했으며, 최근에는 북한 장기 역류자 6명 중 연락이 닿은 4명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축소 따른 역량 약화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

통일정책실에서 분리·신설된 통일협력국에는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됐다.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균형된 통일관·북한관을 심어주는 한편,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김영호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정

보분석'과 '정보 관련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도에서다. 산하에는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도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었다. 대외 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개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통일부 변화는 2024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총 1조 1,087억 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3,271억 원(22.7%) 줄어든 액수다. 기록적인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또 북한 주요지역·시설에 대한 보다 신속·정확한 위성영상분석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상업용 위성영상 자료 도입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북한 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와 같은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 중심으로 올해 1,607억 규모였던 관련 사업비를 약 97억 원(6.0%) 증액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남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 준비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통일부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이다. 통일부가 하루 빨리 이번 풍파를 딛고 일어서 통일·대북정책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길 기대한다. 🌈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

스포츠와 우표를 통한 남북의 만남을 기다린다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은 오랫동안 <민족화해>에 '우표로 보는 남과 북'을 연재해온 북한 우표전문가이다.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가이자 체육인 그리고 북한 우표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그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부단장 자격으로 참가했다. 남북의 만남이 끊어진 지 오래인 지금, 국제대회를 통해서나마 남북은 조우할 수 있었다. 이상현 회장에게 다시 만난 '남북의 시간'을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10월 25일 그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태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글 편집부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 제19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우리 선수단 부단장으로 다녀오셨다. 남북이 정말 오랜만에 국제대회를 통해 만났다. 감회가 어떠셨나.

정식명칭이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다.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치르게 되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북한은 코로나19로부터 선수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참했다. 하지만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무단 불참으로 판단하고 일정 기간 북한의 국제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 징계가 끝난 후 처음으로 북한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대회가 이번 아시안게임이었다. 우리 역시 최다 인원이 참가한 대회로 남북 모두 여러모로 의미 있는 대회였다. 탁구 여자복식 결승에서 남북이 만나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오랜만에 남북이 스포츠를 매개로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선수촌에서 북한 선수나 임원들을 만나더라도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의 경직된 태도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비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만남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간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다시금 느꼈다.

Q | 오랜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은 어떤 인상을 주었나.

현대 스포츠는 관중이 열광할 수 있는 요소, 즉 '재미'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선수들의 소개나 입장 등을 화려하게 연출하고 선수들도 그때를 준비하며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북한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더 많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남북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심판들이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북한 선수들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각 종목이 속해 있는 아시아연맹, 국제연맹과 IOC 등 국제기구를 잘 활용해 남북이 스포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대화제외에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를 통한 협력과 교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우표수집, 남북의 공통분모 찾아가는 여정

Q | 대한하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키를 통한 남북 간 협력이나 교류사업을 구상한 것이 있는가.

2021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 이후 아시아하키연맹, 국제하키연맹 회의에 참여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형식이었는데, 얼굴을 가리더라도 어느 국가가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북측 대표도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자체가 의미 있었다. 국제하키연맹 회장에게도 북측이 다시 국제 하키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또 국제연맹에는 저개발 국가의 하키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가 하키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처럼 북한 하키 역시 적절한 지원과 꾸준한 훈련이 있다면 충분히 육성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키를 통해 남북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탁구복식 결승전. 남북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상현 제공)

에 전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북한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북측 선수들과 교류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북한 하기도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하키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다. 북한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 하키를 대중화한다거나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또는 국제연맹 등을 통한 친선대회, 전지훈련 등의 우회적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북한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

Q | <민족화해>에 장기간 남북한 우표를 소개하는 연재를 해오셨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 우표수집가이다. 북한 우표를 수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9살 때부터 우표를 수집했다. 주로 우리나라 우

표를 중심으로 수집해왔다. 세계우표전시회라는 것이 있다. 우표수집가들이 자신의 컬렉션을 소개하고 또 우표를 연구한 내용을 전시하기도 한다. 거기에서 북한 우표를 전시해 큰 상을 받은 이가 있었는데, 출품인이 일본인이었다. 무언가 기분이 이상했다. 작은 우표지만 북한의 희귀우표들이 통일 이후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 될 텐데, 그것이 일본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북한에는 예전 희귀우표들이 많지 않다. 보존과 관리가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에 팔기 때문이다. 그럼 최소한 우리 한반도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게 북한 우표를 수집하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 우표를 살 순 없으니 전 세계의 수집가들, 딜러 등을 통해 수집해왔다. 앞서 말한 일본인 수집가의 우표가 경매에 나왔을 때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수집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컬렉션을 인수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북한에는 실물과 그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우표들을 적잖이 수집할 수 있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 우표에 대한 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북한과 학술교류의 자리를 갖고 싶은 바람도 있다. 이념이나 정치를 떠나 문화유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북한의 우표 제작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남북이 합동으로 전시회를 열어도 좋을 것이다.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소프트한 남북교류의 또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남북 우표를 통해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금도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북한 우표수집은 그러한 남북의 공통분모

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언젠가 남북이 공동우표를 발행하는 날을 상상해본다.

남북이 함께 파이팅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길

Q | 민화협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민간통일운동 역시 위축된 상황이다. 민화협에 메시지를 부탁한다. 아울러 새해 바람이나 계획도 소개해 달라.

통일은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바라봐야 한다. 2003년 대학생 때 처음 평양을 방문했다. 스포츠 교류를 위한 방문이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평양을 갔는데, 모두 스포츠 교류가 목적이었다. 저는 남북이 정치적 이유로 교류나 대화가 어려운 시기라도 최소한 스포츠와 같은 탈이념적인 공간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민화협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매우 크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를 떠나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화협의 역사는 우리의 축적된 자산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잘 버텨나갔으면 하는 바이다. 동시에 늘 새로운 영역과 분야를 찾는 것도 민화협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학술, 문화, 스포츠 등 북측과 자연스럽게 국제무대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가야 할 때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민화협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표 역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콘텐츠 아닌가. 남북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



사격경기장 밖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북한 선수단의 모습. (이상현 제공)

다고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 북한과의 교류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국민 누구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과 남북관계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음 한편에 통일과 남북 화합에 대한 생각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이 의외로 많다. 민화협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 해 주기 바란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체육인으로서 앞으로 국제무대를 통해 북한 선수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새해에도 늘 노력하겠다. 🌈

독립운동가 강재 신숙의 일생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신숙 강재 선생(1885.12.29.~1967.11.22.)은 일제 강점기 국민대표회의 부의장, 한국 독립군 참모장, 재만 동지회 위원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천도교인이다. 경기도 가평 출신이다. 일생을 조국의 완전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해오신 분이다.¹

그토록 염원하던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하였음에도, 그 후 만주에서 자행된 이족, 동족의 좌우익 간의 대량살상을 보며 이를 일찍이 예방하기 위해서도 '3분주의'가 출현하게 된 연유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3분주의는 동족상잔의 참극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족생활의 참된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정치이념으로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3분주의의 이념

강재는 상해 사회에서 천도교 대표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그 활동을 두고 손병희 의암이 조선 민족을 통일적으로 대표한 의지에 의거하여 통일당

을 조직하고 그 명의로써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천도교 동지들은 극구 찬성하고 조직에 대한 방법을 물었다. 그리하여 강재는 기존의 당의 주의와 방침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한국의 절대 독립의 완성을 위하여 3분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3분주의는 민본 정치의 실현, 노본경제의 조직, 인본문화의 건설을 의미한다. 정치에 국민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는 노동자를 본으로 삼아야 한다. 문화는 인간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에 한국독립당의 정치사상으로 등장하였다. 한국독립당의 3분주의는 헌법정신으로 전승되어 오늘의 한국에 살아남아 있다. 또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종지와도 관련되니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사상인 것이다. 강재는 북만 각지에서 연락된 동지 사십여 명을 회합하여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당시의 긴박한 내외 정세에 의거하여 만장일치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선언문과 3분주의의 당강 및 당규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방침은 중앙에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또 각지의 주

1. 신숙, 『剛齋 申肅의 生涯와 獨立鬪爭: 나의 일생』 (국학자료원: 1963) pp.188.

민회를 연합하여 주민을 결속하고 한족 자치연합회를 조직하였다. 강재는 처음에는 당의 정치부장으로 후에는 민중 위원장이 되었으며, 또 상무위원의 일인으로 당과 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천도교에 그간에 나온 안민당, 청년당, 통일당, 동학당 등은 기본적으로 민본정치, 노본경제, 인본문화의 3분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청우당 역시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는 본질에서 3분주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²

천도교 동학당 결성

이때 국내외 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미묘복잡하여 해방 직후에 우리가 기대하던 이상적 통일국가 건설은 점차 수포로 돌아가고, 소위 지도적 인물들은 자립적 정견도 없이 한갓 외세에 의존하여 각자 정권만 쟁취하려는 야망에서 좌우익이 분열되었다. 한국민주당의 중진인 송진우가 먼저 흥탄에 쓰러지고, 여운형, 장덕수 등이 암살을 당하는 등 해방정국의 참극은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이러한 정치 분열상황에서 한민당을 중심으로 단선 단정이 대두되는데, 북한으로부터 돌연히 우리의 문제는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하에서 남북 지도자들의 협상을 요청하여 왔다. 그리하여 남한에서 세칭 3영수인 우남(이승만), 백범(김구), 우사(김규식)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강재가 한국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신년 1월 초순 경에 천도교에서는 백범과 우사를 초대하여 신년 초대연을 베푼 일이 있었다. 이 자리에 내빈

2. 성주현, "강재 신숙의 삼분주의와 천도교청우당의 정치이념" 『왜 이념당 건설인가?』 전계서, p. 384.

으로 참석하게 된 강재는 백범과 그간의 숙원을 풀고 다시 굳은 악수로써 앞날을 약속한 바 그 후 4월 경에는 남북 협상을 위하여 평양까지 동행하게 된다.

6·25이후 십여 년간에 국가적으로 정치활동과 천도교의 일들의 과정을 회고해 본다면 70년간 위기에 이른 국가사업에 협조함과 아울러 부산 피난 시절에 천도교 보국 연맹위원장의 책임을 지고 월남한 천도교인의 수습과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지부조직 등으로 교회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들을 계속하였다. 1958년에 이르러 보국 연맹과 천도교 청년회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새로이 동학회를 결성하여 이에 고문으로 추대를 받았다. 4·19 이후 동학회 중앙본부위원장으로 다시 취임했다가 시국의 요청에 5·16전까지 동학당 결성 준비 위원회 대표 지도위원의 역할을 맡았다.

강재의 묘역은 지금 도봉구 수유리 애국열사의 능에 모셔져 있다. 북에는 지금도 천도교 청우당이 있다. 남은 1947년 12월 26일 미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30년 전에 동민회(동학민족회)를 천도교 전위단체로 하여 설립하였다. 올해 정전협정 70년 7·27을 맞아 (가칭)동학당 창당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3통 실현(통행, 통신, 통상)을 추동해내기 위해서이다.

강재 선생의 못다 한 꿈을 이루기 위해 3분주의의 정치이념을 우리가 계승해나가고자 한다. 🌈

노태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동대학원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해 민족사상연구소 소장, 민족통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동학회를 설립하는 등 천도교와 동학에 대한 꾸준한 연구·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 5월 20일 동학민족통일회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되어 천도교의 대중화와 민족통일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격변하는 남북관계, 민화협의 방향과 역할

김경윤 민화협 청년미래위원장



1953년 7월 27일.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3년간의 길었던 싸움은 전쟁의 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종지부가 아닌 잠시 휴식으로 협정이 맺어졌다. 하지만 잠시 휴식의 협정은 어느덧 70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남과 북은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또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에 새로운 지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미온적 자세,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종종 대한민국의 내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승하되,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의 통일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는 통일정책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일 정책 기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되는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현재는 통일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 보다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앞으로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분단되었고, 현재는 우리 한반도만이 분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자, 분단극복의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중 분단의 시작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독일을 적용 가능한 모델로 보고

있고,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 정세, 특히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른 통일정책을 펼쳐왔고, 그에 따라 교류협력의 범위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한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수위가 조절되기는 하였으나, 교류협력을 중단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말로써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행동은 통일부 교류협력 관련 부서의 통폐합 및 인원 축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 설치 등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며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인도 협력사업에서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으며, 통폐합이나 축소, 그리고 감시가 아닌 기존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진보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경험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화협의 방향과 역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로서, 민관 협력의 소통, 국민 합의의

소통,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의 소통, 남북화해 협력의 소통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침체되어 있는 대국민 통일외식 저변 확대를 위해 민화협은 첫째,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200여 개 각계각층의 단체 및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통일외식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아닌 참여의 문턱을 낮춰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토론회 및 세미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 민화협은 남과 북의 정부를 제외한 민간 부문에 있어서 공식적인 소통 기관이다.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소통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 금강산이 개방되고 많은 국민들이 방문했을 때,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다. 금강산을 방문해 본 청소년과 아닌 청소년은 통일외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금강산 및 북한 방문은 어렵지만 다른 방식의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통일과 민화협의 역할에 대해 알릴 필요성이 있다. 분단의 세월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사람들의 삶에서 잊혀져 가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함양은 그 어떤 활동보다 중요한 가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민화협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취지와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분단을 종식하고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신미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상임대표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위한 35년 여정**



1988년 설립 이후 35년 동안 통일교육을 비롯해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새로운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하 새조위). 35년간 변함없이 새조위와 함께 해온 신미녀 상임대표는 소박해 보이지만, 결코 소박하지 않은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한반도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우리인 탈북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기도 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는 10월 2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새조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글 편집부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 지난 9월 '2023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저는 실향민 2세대. 고향이 북한에 인접한 강원도 산골인데 아버지께서 북녘 고향 하늘을 보고 울고 계신 모습을 어려서 보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가는 게 소원이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통일에 관심을 두다 보니 새조위와 함께 한 세월이 어느새 35년이다. 큰 훈장을 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크다. 통일운동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외롭고 힘든 일이다. 그동안 새조위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Q | 새조위 35년 역사 중 전반 15년을 통일교육에 주력한 시기로 평가하셨다.

새조위는 1988년 홍사덕 설립자(전 국회부의장, 전 민회협 대표상임의장)의 <나의 꿈 나의도전>이란 통일관련 책을 읽은 5천여 명의 독자모임으로 시작했다.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1991년 당시 국토통일원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후 200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다.

전반기 15년은 전국을 돌며 주로 통일교육과 토론, 세미나 위주로 활동했고, 특히 1997년 IMF 시절 서부역에서 버스를 개조해 매일 아침 노숙자분들에게 아침을 제공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150여 명이 오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 아이들이 줄을 섰고, 하루 1천5백여 명이 되었다. 아쉽게도 컵라면 값이 없어 4개월 만에 중단했다.

탈북민 정착 역사와 함께 한 새조위

Q | 2003년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생활정착 등 복지사업을 진행했다. 계기는 무엇이었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소개해 달라.

새조위의 주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찾아가는 가족돌봄사업, 전문가 양성, 코칭교육, 교육사업, 통일운동 예행연습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우리 사회에 생각지도 못한 탈북민들이 입국하기 시작했다. 새조위는 그분들을 돕기로 하고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처음엔 우왕좌왕 했는데 홍사덕 설립자께서 먹고사는 걸 해결해 주자는 제안을 하셨다. 그 당시만 해도 탈북민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어 취업 안 내가 어려웠다. 회사를 찾아 사장, 임원들에게 호소하거나 인맥을 통해 연결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프다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하나원을 통해 탈북민들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의 20년간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의료지원 사업인데, 2006년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전신)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을 시작으로 충남대병원(2호), 인천직접자병원(3호), 서울의료원(4호), 부산백병원(5호)에 북한이탈주민의 30%인 1만 3천여 명이 진료를 받도록 도왔다. 지금까지 진료 건수가 15만 건이 넘는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양성했다. 당시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남한 출신들이 상담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동료상담원을 양성하게 됐

다. 또 2014년부터 통일문화 운동으로 통일연극과 통일강연극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13번째 작품 '인차, 다시 만나자요'를 대학로에서 5회 공연했다. 새조위에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특히 남북한 언어의 다름을 알리고자 2015년 시작한 '북한사투리 노래자랑'도 개성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남한 노래를 북한사투리로 부르는 경연대회다. 경연 내내 웃음을 자아내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북녘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공모사업을 해 1천여 통의 편지를 받았다. 5년간 수상작을 모아 <고향마을 살구꽃은 피는데>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어떤 분은 편지를 우리가 북한으로 바로 보내는 거 해서 고향 집 주소와 자신의 사진도 함께 동봉해 왔다. 그 편지에는 탈북민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Q | 3만 5천 탈북민과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복잡하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20년간 6천여 명의 탈북민을 직접 만났다. 처음에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얼굴에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남한 출신인지, 북한 출신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초기 우리 사회는 탈북민이 누군지도 몰랐다. 주민등록증은 있는지, 만약 문제가 되



지난 9월 13일 신미녀 대표(가운데)는 민간통일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통일부 제공)

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믿을 만한지 등. 누군가는 환영했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새조위 역시 초기에는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제가 임원진 워크숍에 가면 설립자에게 특강을 부탁하곤 했다.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부 하나가 1999년 설립되었으니, 탈북민의 역사도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탈북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착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정착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종교, 통일운동의 영역에서 머문다. 이제는 일반 사람들의 영역으로 보고 차별 없는 시각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한사회를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부가 필요하다. 함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손잡고 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한다.

남북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삶 물려줘야

Q | 북한인권문제는 어느 순간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치부되면서 정권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선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과연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실효적인 문제인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가?

인권문제는 정치, 종교 등을 벗어나 인간 본연의 기본 권리인데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정권과 당국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새조위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탈북민을 통해 그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다. 올해 새조위는 통일부의 지원으로 지난 7월 전국 13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연극을 진행했다. 9천여 명의 학생들이 관람했는데, 북한인권에 대해 연극을 본 후 85%가 공감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보며, 우리 사회에서도 홍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 지난 정부포상 전수식 소감을 통해 실향민으로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가족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줄어들고 있다.

분단 이후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의 변화는

분명 크다고 생각한다. 이전엔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숙명이라고 받아들여 통일의 방법론과 시기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사회가 되었다. 세대간, 계층간 또한 저 같은 실향민 2세,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등 이해 당사자 간의 다양한 생각이 더욱 더 통일운동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된다.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한다.

Q | 2024년 새조위가 구상 중인 목표와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아울러 변함없이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통일운동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통일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정착지원은 전국 4곳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을 통한 의료지원, 심리치유(트라우마 치유, 힐링센터), 북한이탈주민 가정돌봄서비스, 통일코디네이터(11기), 통일강연극, 특히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통일연극,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예행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분단이전 한반도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남북을 오가며 살았다. 이제 남한은 실제적인 섬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이 들어 이 땅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자손들이 스스로 없이 남북을 오가며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무가 우리세대에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

민화협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날

“민족화해를 넘어 민족화합으로!”

글 편집부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민화협 창립 25주년 커팅식. (왼쪽부터) 이종걸 전 국회의원, 황선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의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양영두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문승현 통일부 차관,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형진 세종그룹 회장, 양정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평화통일위원장, 최용관 통일농산협동조합 대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대표상임의장,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1.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좌)은 민화협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김형진 세종그룹 회장(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 양두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좌)과 정대진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우)이 <민화협 25년, 새로운 비전 2023>을 낭독하고 있다.



민화협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회원단체들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11월 2일 오후 5시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민화협 창립 25주년 기념 후원의 날이 열렸다. “민족화해를 넘어 민족화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 이종찬 광복회 회장,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형진 민화협 상임의장·세종그룹 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 민화협 전현직 임원과 180여개 회원단체 관계자, 우리 사회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손명원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 창립 정신을 잊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민화협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탄생했다”며, “민화협 즉 ‘민족·화해·협력’이라는 명칭에 민족통일국가를 이루는 첫 단계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라’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회원단체들과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통일부 문승현 차관은 장관 축사를 대독하며 민화협 창립 25주년을 축하했다. 문 차관은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는 계층과 세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뜻과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믿는다”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통일담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회원단체를 대표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화협 후원의 날 개최를 축하했다. 이종찬 회장은 우리 사회 내 민화협의 존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화해의 문을 열기 위해 두드려야 한다”라며, “민화협이 현재 경화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 민족 전체가 화해하는 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삼열 민화협 상임의장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3·1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우리 민족은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진 위대한 역사를 일궈왔다”며,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다.

전임 대표상임의장들은 지난 민화협 활동을 회상했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특별한 업



문승현 통일부 차관, 이종찬 광복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이종걸 전 국회의원,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정치인생에서 민화협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왔다”며, “남북 간 답답한 현실 속에 ‘민족화합’이라는 큰 목표를 제시한 민화협이 대견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종걸 전 의원이 “북한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공생하고 함께 번영해야 할 특수한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족 간 인연의 끈을 지닌 민화협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사도 있었다.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화협과 연대의 뜻을 밝혔다.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해석 손정도 목사가 상해 임시정부 설립과 초기 운영을 같이 일궈온 역사를 소개하며, “흥사단 단우였던 손정도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흥사단도 민화협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며 민화협에 힘을 보탰다.

지난 25년 역사 속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화협 후원회장과,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상임의장으로 함께하는 김형진 세종그룹 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김 회장은 “민화협 활동이 힘

들고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사익과 영리가 아닌 한민족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금강산, 평양, 개성, 중국 등을 다녔다”며, “엄중한 시기에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민화협 25년, 새로운 비전 2023〉 선포식이 있었다. 새로운 비전 마련에 적극 참여한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인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와 민화협 회원단체와 청년활동가를 대표해 양두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이 낭독자로 나섰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향후 민화협의 활동방향을 회원단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일본 도쿄, 프랑스, 독일 베를린 등 해외 협의회 의장님들의 축하영상 메시지와 지난 25년 민화협 활동을 정리하는 영상을 감상했다. 또 서울 민요연구회에서 민화협을 응원하고자 “남누리 우리누리”, “비무장지대”, “철망앞에서”를 불러, 후원의 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그간 민화협의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힘든 시기 강인하게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25주년 기념 커팅식을 했다. 민화협은 앞으로도 회원단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민족화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

민화협 회원단체 예방

민화협, 상임의장 단체 예방

편집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민화협 상임의장 단체들을 예방했다. 지난 9월 중순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를 찾았다. 10월 10일 손 대표상임의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찾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통일위원회가 조직되어 그간 통일선봉대 등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해왔다”며, “한국노총과 민화협이 적극 연대해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0월 12일에는 용산에 위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를 찾았다. 허명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내부역량을 키우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한 위



치 속에 자유민주주의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들을 여협과 민화협이 같이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10월 24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간담회가 있었다.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민화협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본부 1층 전시실에서 한국교총의 설립배경과 70여년의 역사를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성국 회장은 “우리 사회 진보, 보수, 중도 세력들을 아우르며 통일 담론을 쌓아가는 민화협의 취지에 따라, 한국교총도 통일교육 등 민화협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화협은 회원단체들과 소통을 확대해나가면서, 향후 민화협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들을 함께 고민 해 나갈 것이다. 🌈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

2023 제5회 한반도 평화통일음악회

김태우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선율이 넘실댔다.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상임의장 정선경, 이하 베를린지회)는 지난 10월 4일 한독문화예술교류협회와 함께 카이저빌헬름기념교회에서 '제5회 한반도 평화통일음악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음악회'는 33년 전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역사적 현장에서 한독 음악가들과 1세대부터 3세대에 이르는 한인 동포들이 문화와 예술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는 한독수교 140주년과 파독 근로자 파견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그 의

미를 더했다. 공연에 앞서 양정주 민화협 공동의장은 "1990년 10월 3일은 독일통일을 이룬 날이며, 2007년 10월 4일은 남북 정상이 10·4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라며, "평화의 기운이 깃든 날에 통일의 성지 베를린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선율이 저 멀리 한반도에 전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정선경 베를린지회 상임의장은 "정전 70주년인 올해, 우리처럼 분단국가였다가 33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과 달리, 78년째 분단이 계속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독일과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



10월 4일 독일 베를린 카이저빌헬름기념교회에서 열린 '제5회 한반도 평화통일음악회'.

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음악회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인들이 함께했다. 독일에서 학업 중이거나 활동 중인 한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베를린 한인 오케스트라는 박근태의 지휘와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인 강별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으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였다.

또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과 모차르트의 피가로 결혼 중 <내밀어 다오 사랑아>를 테너 이주혁과 소프라노 박세린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줬다. 무엇보다 독일 중창단 '도라지 앙상블'과 한국의 '한빛 어린이 합창단'이 한들의 <홀로 아리랑>과 안병원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 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민화협은 베를린지회 회원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10월 5일 베를린 한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간 베를린지회 활동사업들과 추진 과정에서의 고충들을 이야기 나눴다. 1960년대 중반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온 최영숙 베를린지회 회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왜 우리가 아닌 독일인가'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며 "타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는 한인교민들이 많다. 우리 고국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해외협의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베를린지회 2030 청년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도 이어졌다. 청년 회원들은 훔볼트 대학교, 자유대학교 등 베를린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청년 회원들은 베를린지회 활동을 두고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귀한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50년 가까이 베를린 생활



10월 5일 독일 베를린 한식당에서 민화협 베를린지회 정선경 상임의장, 회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양정주 공동의장은 해외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베를린지회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을 해온 선배 회원들과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창구이기도 하며 소감을 전했다. 양정주 민화협 공동의장은 학업과 평화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청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독일 통일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도 있었다.

독일 베를린장벽 재단을 방문해 동서독 분단시기 주민들의 삶과 통일과정에 대해 들었으며, 동서 베를린의 경계였던 브란텐부르크 문과 대표적 검문소였던 체크포인트 찰리, 유대인학살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문화예술과 만나 평화의 벽화로 거듭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등을 찾았다.

베를린지회는 분단시절 서베를린을 둘러싸던 160킬로미터 길이의 옛 장벽길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를 생각해보는 "베를린 장벽길을 따라 평화를 향해 걷다"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다음 사이트를 접속하면 해당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베를린지회의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https://berlinpeacewalk.mixon.io>)

2023 롯데장학재단-민화협-북한연구학회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학술심포지엄

글 김민아 민화협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10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B동에서는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민화협은 10월 20일 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B동에서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 북한연구학회(회장 전영선)와 함께 '제5회 북한연구 지원사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2023년 북한연구 지원사업에 선발된 석·박사 총 21명이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북한연구학회 소속 전문가 11명이 토론을 맡았다. 개회식 인사말에서 손명원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은 북한을 제대로 알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장기적 비전 속에 북한연구 지원사업을 5회째 진행해 오고 있다”며

“연구지원사업이 이공계나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업은 통일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귀중한 학술연구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후원해 준 롯데장학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영선 북한연구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변화된 지점을 소개했다. 그는 “이전까지 우수논문 후보자들만 발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전체 연구자가 발표를 하고 북한연구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을 맡은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며, “학술 논의가 더욱 풍부해진 만큼 연구자들이

논문 과제들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연구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올해 연구자들의 논문이 여느 때보다 가장 완성도가 있었다”며 “그간 연구들을 잘 진행해 온 만큼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 자신 있게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올해 연구자 22명 중 자연과학은 2명, 문화예술은 4명, 인문사회경제는 16명으로 인문사회경제분과는 가장 많은 인원으로 주제별로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인문사회경제1분과는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며, 통일연구원 조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통일연구원 박주화, 이지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인문사회경제2분과는 북한의 사회 및 역사 등을 주제로, 전영선 북한연구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송현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가 토론했다. 인문사회경제3분과는 북한의 경제, 도시,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홍순직 서울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사회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과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인문사회경제 4분과는 석사급 연구자들의 발표로 박인휘 심사위원장이 사회를,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과 조은희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자연과학분야는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사회를, 오삼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이 토론을 맡았으며, 문화예술은 전영선 북한연구학회장이 사회를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배인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우수연구자 시상식이 있었다. 우수논문 선정은 본 사업 심사위원회 10인의 사전 서면심사점수와 현장에서 진행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박사급 3



우수논문 연구자로 5명이 선발됐다.(왼쪽부터) 석사급 1등 김진주, 박사급 1등 최설, 박사급 2등 허민정, 박사급 3등 이시효, 석사급 2등 김보민.

명, 석사급 2명이 선발됐다. 박사급에는 1등 최설(북한의 비공식 신발제조 활성화 실태 분석), 2등 허민정(남북산림협력을 위한 2000년대 이후 남북한 산림해충 연구 동향 비교), 3등 이시효(개성공단이 개성시 도시공간과 일상에 미친 영향: 머신러닝과 내러티브 혼합연구 접근) 박사가 수상했고, 석사급은 1등 김진주(한반도 평화문화 패러다임의 실천적 이해), 2등 김보민(김정은 시기 조선노동당 당규약 통일관 분석) 연구자가 선발됐다. 최설 박사는 “한국정착 11년차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라고 감회를 밝히며 “남과 북을 연결하는 ‘민화협’의 역할처럼 북한의 경제와, 여성, 사회를 깊이 연구하여 통일학자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석사급 1등을 수상한 김진주 연구자는 “생각지도 못한 수상”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22편의 연구들은 곧 각 학술지에 투고, 게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1회부터 선정된 연구목록은 민화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우수연구로 선정된 다섯 편의 논문은 민화협 격월간지 <민족화해>를 통해 향후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

독일 베를린지회 온대야 세 번째

“독일 통일 이후 국경 분단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와 기억”

채민진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 회원

민화협 독일 베를린지회(상임의장 정선경, 이하 베를린지회)는 지난 10월 27일 “독일 통일 이후 국경 분단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와 기억”의 주제로 온대야(On 대화 ja, ‘ja’는 독일어로 ‘yes’를 의미) 세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온대야 세미나는 회원들이 통일 준비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두 달에 한 번씩 독일과 베를린의 특색을 담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장은영 씨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2022년 훔볼트 대학교에서 열린 ‘끝나지 않은 동독의 역사’ 세미나를 수강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과거사 연구에 대해 완벽한 줄 알았던 독일이 국경 분단 지점 희생자들과 그들을 위한 공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열렬하게 연구하고 토론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독일의 국경 분단 또한 종식되었고, 베를린에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분류와 추모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독일 정부

가 희생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분류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진행된 ‘베를린 장벽 재판’은 민간인들을 사살한 국경군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동독의 SED(Di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과 희생자들의 정확한 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베를린의 장벽 기념관, 베르나우어 슈트라쎬와 소피엔 묘지 등의 추모 장소는 국경 분단 희생자들을 다루는 기억의 장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및 분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현재까지도 국경 분단 지점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와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어떤 집단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국경 분단 지점의 사망자 및 희생자의 수는 달라지는데, 통일 이후 검찰은 1993년에 국경 희생자를 274명으로 추정했고, 2001년 독일 검찰 중앙수사부(ZERV)에 의하면 421명으로 국경 희생자의 수를 정정했다. 이후 2004년 해당 연구와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즈음 베를린 검찰은 총기와 지뢰로 인한 국경 분단 지점의 희생자 수를 270명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를린 검찰과 연구팀은 희생자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1) 국경지대를 탈출하면서 총살 혹은 지뢰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2) 외부 영향 없이 탈출 시도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3) 구 동독의 국가 기관에서 행정 실수로 인해 누락된 사망자들 4)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국경 부대원 소속 구성원들이다.

마지막 네 번째 집단에 속하는 사망한 국경 부대원들은 2009년 베를린 장벽 재단 과학자문위원회의 논의 끝에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비록 징집병일지라도 사실상 독재 정권의 조력자들이 아무런 언급 없이 피해자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독일의 젊은 세대들에게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재판과 청산의 모습은 동독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뤄낸 결과이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서독 주민들의 열정이 이뤄낸 힘찬 행진곡이라고 발표자 장은영씨는 표현했다. 국경 분단 희생자들을 다루는 기억과 추모의 장소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되 투명한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독일의 미래 세대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네 번째 세미나는 2024년 1월 중 “한국 사회의 갈등과 적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민화협 베를린지회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통일 준비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넓히고자 한다.



1. 베를린장벽 기념관 앞에는 서독으로 탈출하다 목숨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추모비가 있다. 희생당한 주민들의 사진들을 액자형식으로 묶어 냈는데 자유를 향해 탈출한 사람들부터 죄없는 일반주민과 어린이들도 있다. 독일 사회는 동서독 분단이라는 역사적 흔적을 넘어서 분단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개인사(史)까지 기억하고자 한다.
2. 피터 페흐터와 그 추모비. 피터 페흐터(Peter Fechter)는 1962년 8월 17일 18세 때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동독 국경수비대에게 피살되었다. 1990년 독일 통일 후에 피터 페흐터 기념비가 짐메르슈트라세에 세워졌다. 독일 사회는 그를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책, 노래 등으로 오늘까지 그를 기억하고 있다. (사진출처 : Ullstein Bildarchiv, Hans-Hermann Hertle)





<2023 경기도 더 큰 평화 국제청년포럼> “더 큰 평화, 청년 연대의 힘으로 나아가자!”

글 문예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사진 (사)평화의 길

경기도가 국제 청년들과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고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평화를 상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5일, 수원북한문화공간 '111cm라운지'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평화의길이 주관하는 <2023 경기도 더 큰 평화 국제청년포럼>이 개최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며, 남북관계 경색 속에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대화와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감대 확산을 바랐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평화를 지키는 한

걸음, 평화로 향하는 한 걸음이 절실한 시기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대훈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국제 청년들의 목소리,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리사 크왈렐라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아프리카 연합은 인도주의적 지원, 평화 구축 및 유지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외의 지역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기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프리카 연합의 전략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차이린 푸단대학교 발전연구원 연구원은 “동아시아 청년공공외교와 평화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청년 공공외교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동아시아 청년공공외교를 통해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론환경 조성, 젊은 세대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문화창조, 한·중·일 청년의 인문적 유대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마키 아이 오키나와 평화운동 활동가는 “동아시아의 여성: 평화를 위한 연대”를 발표했다. 그는 오키나와 여성 사회운동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구축방안을 소개하였다. 오키나와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전시 성폭력 피해(위안부 문제) 경험이 있으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오키나와의 여성 사회운동을 통해 여성들 간의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곧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경기청년피스리더와 함께 “경기청년, 평화를 잇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기피스리더는 만19세~34세의 경기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월 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큰 평화’란 환경과 생태, 세대 간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평화 논의를 의미한다.

세 번째 세션은 벨기에 출신의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는 방송인 줄리안 퀴타르트가 좌장을 맡아

“토크라운지: 청년 열린대화, 평화의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가보 세보 서울대학교 방문연구원이 “북한 사회에서의 영화의 역할”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영화라고 하면 선전물이라는 편견이 많은데, 북한에서 영화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 영화 장르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사회주의 재건설 등 이데올로기적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코미디 영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 일본, 영국,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페데리카 피아 프라티노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교 석사과정생은 “이탈리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고, 교황이 핵 갈등을 봉합하기도 했다”며 한반도 평화에서 이탈리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ERASMUS Program)를 소개했는데, 평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준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활동가는 김복동, 김순악 할머니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풀어냈다. 한반도에서 식민지 이후 분단과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음을 지적하였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상을 촘촘히 엮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한 국내외 청년들은 평화에 대한 각국의 여러 관점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더 큰 평화’에 대한 공동의 과제와 국제청년들의 평화연대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남북한 언어교육 동질성 회복을 위한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 분석 연구

김한근 연세대학교 한국학교육학 석사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북한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족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분단되어 각자의 길을 모색하며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 즉 한국어(Korean)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어마저 북한은 ‘평양문화어’, 남한은 ‘표준어’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남한과 북한의 언어학계에서는 민족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한민족 간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05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민족의 열이며 우리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겨레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두 언어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언어교육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남한은 그간의 경제 발전과 한류열풍,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발달에 힘입어 한국어의 위상은 물론, 한국어교육 역시 양적·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남한은 1959년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조선어교육 역시 1954년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중국, 몽골, 루마니아 국적의

유학생 9명에게 최초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어교육의 역사 또한 깊다고 할 수 있다. 양측의 이러한 언어교육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두 언어교육학 간의 파악과 현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통합 한국어(조선어)교육’을 고려하였을 때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의 현황 분석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6년~2019년 중국의 ‘조선 교환 장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어교육의 가교

‘조선 교환 장학생프로그램’은 매년 중국의 조선어학과(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대략 7개월 동안 북한에서 조선어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국제적인 상황과 다양한 변수로 일정이 변경되기도 한다. 연수에 참여한 중국의 대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명시된 것이 아니며 면담자들의 면담으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년도	총 인원	파견 대학교(인원 수)
2016	35명	광둥외어외무대(7), 남경대, 북경외대, 북경제2외대, 상해외대, 연변대(11), 장춘이공대
2017	41명	남경대(2), 대외경제무역대(2), 북경외대(2), 북경제2외대(6), 상해외대(4), 연변대(13), 장춘이공대(2), 천진외대(5), 하북대(2), 흑룡강대(3)
2018	22명	산둥대, 연변대, 북경외대, 북경제2외대, 절강외대, 천진외대, 흑룡강대
2019	35명	광둥외어외무대, 남경대(1), 북경언어대, 북경외대, 북경제2외대, 산둥대(3), 상해외대, 소주대, 연변대, 장춘이공대, 절강대

‘조선 교환 장학생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연수 일정은 매년 일정하지는 않으나 두 개 학기로 구성되어 있고 학기 간 10일~15일 정도의 여름방학이 존재하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오전에는 조선어교육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실습’활동을 진행하는 것 역시 동일하다. 학급 구성은 학습자의 민족에 따라 나뉘는데 일반적인 한족 학습자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급으로, 조선족 학습자의 경우 일반 조선어교육 학급으로 구성된다.

조선어교육의 실제-언어학습

연도별 교과목과 시간표를 살펴보면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급에서는 ‘회화’, ‘강독’, ‘문법’, ‘글쓰기’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조선어를 배우며 일반 조선어교육 학급에서는 ‘일반언어학’, ‘방언학’, ‘조선어학개론’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강독’ 수업은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힌다’는 사전적인 의미에 맞게 교재에 수록된 본문을 한 명씩 읽는 활동이 주를 이루며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본문의 분량이 많은 까닭에 본문 읽기와 함께 틀린 어휘, 문법이 포함된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기, 배운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여 작문하기 등의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재는 북한의 정치, 문화, 역사, 고전 등의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작품을 수록하고 다양한 어휘와 연습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회화’에서는 『조선말회화1』과 『조선말회화2』를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화’ 수업은 ‘강독’ 수업과 동일하게 교재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재에 수록된 본문이 대부분 연극 대본 또는 영화 대본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자끼리 교재의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여 대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활동 역시 학습자끼리 짝을 지어 대화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강독’과 동일하게 중간중간 교사가 개입하여 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강독’에 비해 역량교육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법’은 ‘강독’과 ‘회화’와 달리 오로지 교사의 강의로만 진행되어 면담자들이 다소 지루해하였으며 체감 난이도 역시 가장 높았다. 면담자들은 이미 중국에서 한국어 문법 체계를 어느 정도 익힌 상태였기 때문에 두음법칙, 외래어 표기 방식, 띄어쓰기 등과 같이 한국어와 조선어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어려워하였다. 당시 사용하였던 교재는 『조선어실천문법』(2015)이다. ‘실천문법’은 이광정(2008)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에 등장한 문법 유형으로 기존 ‘제2기 규범문법’을 상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법을 ‘언어사용’에 집중하여 설정한 유형으로 실용적인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어교육의 실제-실습

‘실습’ 활동이란 최대 1주일에 2번에서 3번, 최소 2주일에 1번 진행되는 활동으로 북한의 관광 명소를 탐방하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화 체험’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면담 결과 ‘실습’이 정확한 명칭임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 프로그램의 개설 교과목, 수업 시수, 일

정은 상이하였으나 실습 활동에서 방문하는 관광 명소는 대동소이하다. 공통적으로 금수산태양궁전, 개성과 원산 일대, 평양 시내, 금강산, 묘향산을 방문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백두산을 방문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실습’ 활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직접 관광 명소를 방문하며 실제적인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학습자 모두 높았다. 과목별 만족도에서는 우선 ‘회화’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역량교육에서는 학습자별로 만족도가 상이하였다.

결국 ‘조선 교환 장학생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본국(중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어를 배워야 하기에 발음과 억양의 화석화를 두려워하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 조선어 억양을 하나의 방언으로 인식하여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학습자도 존재하였다.

조선어교육 후기

학습자들이 북한에서 조선어를 배우는 계기는 접근하기 힘든 북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컸으며 실제 조선어를 배우기 위하여 해당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는 적었다. 학급 구성은 연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형직 사범대학교의 경우 1개의 학급만 운영하고 있으나 김일성종합대학교는 3개의 학급을 운영하여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 학급 2개와 일반 조선어교육 학급 1개를 개설하고 있다. 일반 조선어교육 학급에는 조선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우에 따라 조선어(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학습자 또한 일반 조선어교육 학급에 편입되

기도 하였다.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회화’, ‘강독’, ‘문법’, ‘글쓰기’ 과목을 중심으로 조선어를 배우며 일반 조선어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일반언어학’, ‘방언학’, ‘조선어학개론’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과목별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제성이 높은 조선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 과목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강독’, ‘문법’, ‘글쓰기’ 과목의 만족도는 강의로만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과 높은 학습 난이도로 인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미래를 위한 발걸음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범위를 외국인 대상의 언어교육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한류’가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이제는 ‘K-’로 사용될 만큼 남한은 어느 시대보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다. 한국어 교육 역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고 더군다나 미래에는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 학습자의 다변화에 따른 교육 과정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실제적인 통일을 논의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기에 통일의 관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학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과 조선어교육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지금부터라도 내디딜 때이다. 🌈

북한의 먹방, 무엇이 다를까?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북한연구학회 회장



북한에서도 먹거리와 관련한 방송은 인기 콘텐츠의 하나이다. '사회문화상식', 'TV민족요리경연', '민족요리' 등의 이름으로 요리를 소개한다.

요리 프로그램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꽤나 까다로운 콘텐츠의 하나이다. 식재료의 신선함을 앵글에 잘 담아야 하고, 조리 과정도 지루하지 않게 요리조리 다채롭게 꼼꼼히 담아내야 한다. 특히나 조명은 그늘지거나 어두움이 없어야 하고, 음식을 담는 그릇이며, 플레이팅도 세련되어야 빛이 난다. 북한의 요리 프로그램은 10여 분 정도의 시간에 요리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요리 과정과 비법, 맛보기를 보여준다. 요즘 나오는 '요리상식' 방송을 보면 요리 재료를 준비하고 따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요리 방송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전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방송 장비가 첨단으로 바뀌고 해외 방송을 경험하면서 많이 세련되어졌다.

'우리 요리 프로그램이 달라졌어요'

김정은 체제 이후의 요리 프로그램은 방송 방식이나 스타일, 연출에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다. 방송을 하는 장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식당 주방을 이용하였다. 이름난 식당을 찾아가 주방에서 그 식당 요리사가 출연하여, 요리 재료를 소개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방송은 장소부터 달라졌다. 근사한 카페를 배경으로 진행한다. 위스키나 장식이 놓여 있는 책장을 배경으로 깔끔한 분위기에서 재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숨겨진 비법을 소개한다.

요리사들의 복장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별도의 요리사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해서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입는 것 같은 흰 가운 같은 느낌이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요리사는 단추도 두 줄로 달리고, 장식이 새겨진 두툼한 요리사복을 입는다. 머리에 쓰는 캡도 달라졌다. 한눈에 보아도 재질도 고급지고, 높이

북한의 요리 방송과 요리사



사진 위부터 TV민족요리경연식당-양배추말이 김치, 조선민족요리-떡국, 조선민족요리-팔죽.

도 높아진 캡을 쓴다. 한층 멋스럽고, 권위가 있어 보인다.

진행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 진행자는 그야말로 진행만 맡았다. 요리사 옆에서 요리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조리된 음식을 맛보지도 않았다. 북한의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먹는 부분이 없었다. 요리를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났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요리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었다. 우리는 요리라고 하면 ‘먹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예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예절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먹방은 연출 방식도 진행자가 요리사를 따라서 같이 조리도 해본다.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실수도 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완성된 요리를 시식하는 등 ‘예능감’을 많이 살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소개하는 음식을 직접 맛볼 수가 없어서 요리의 느낌을 살릴 수 없었는데, 남한 방송처럼 진행자가 직접 먹어보면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식생활 정책을 그대로 방송에

요리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요리 재료이다. 북한의 요리 프로그램에는 북한 당국의 먹거리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은 바다와 산, 들이 있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였다. 여러 재료 중에는 당에서 강조하는 식재료를 이용한 식자재가 많다. 감자를 많이 생산하면 감자와 관련한 요리가 나오고, 토끼 기르기를 강조하면서는 토끼 관련 요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전문점도 있다. 북한에서는 식재료에 따라서 전문식당이 있어 전문식당을 찾아서 진행하기도 한다. 수산식당을 찾아가서 잉어국을 소개하거나 초밥전문식당을 찾아가서 초밥이나 김밥을 소개한다. 초밥식당은 일식당이다. 우리는 한식, 중식, 일식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식 보다는 ‘민족요리식당’이라고 한다. ‘일식’이라는 표현이 없다. 대표요리인 초밥을 따서 초밥집, 초밥식당이라고 한다. 중식도 그냥 짜장면집이라고 한다. 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국수집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전문식당으로 이색적인 식당의 하나는 강냉이 전문식당이다. 북한에서 옥수수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곡물이다. 많이 생산되는 옥수수를 이용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생겨났다. 이런저런 상식을 소개하는 ‘사회문화상식 <강냉이국수>편’에서는 오탄 강냉이전문식당에서 만든 강냉이국수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강냉이 국수를 이용한 요리이다.

강냉이 국수를 찬물에 불리고 끓인 다음에 오이 냉국에 말아서 먹거나 양배추, 버섯, 미역 줄기, 고구마잎 줄기, 풋고추로 만든 꾸미와 함께 먹는 요리이다. 요리 방송에서는 식재료와 관련한 상식과 정보가 나간다. 사회문화 상식으로 소개한 ‘김밥 만들기’에서는 “겉고 진한 보라색이 나는 김이 김밥을 만드는데 좋습니다”라는 해설 자막과 함께 “김은 우리나라 황해남도 용진에서 많이 나오는데,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요리 방송을 통해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 진작도 하는 것이다.

북한의 먹방 스타는?

한국에서 먹방 유튜브나 유명한 셰프들은 스타로 대접받는다. 북한에서도 요리사는 인기 직업이다. 요리방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출연하는 요리사들도 유명세를 타기도 한다.

요리사가 되면 일단 기본적인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도 많다. 특히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 직업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료리학원’ 같은 요리학원을 나와야 한다. ‘중앙료리학원’은 3년 과정의 유일한 요리 전



문대학이다.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과정의 단기 직업전문학교도 있다. 중앙료리학원을 나오면 고급호텔이나 유명한 식당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고 한다. 요리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방송원으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강일심이 유명하다. 김정은 체제 이후 방송 설비를 현대화하면서, 방송원들을 새로 뽑았다. 상식과 과학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는 강일심은 배우 출신의 김은정과 일기에보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리은미와 함께 북한 방송원의 떠오르는 스타 방송인으로 꼽힌다. 강일심은 기자로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방송 기획도 한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제27대 북한연구학회장을 맡았다. 북한사회문화 및 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펴낸 국내 최고의 북한문화예술 전문가이다.

문학 속 통일미래 40

항일무장독립투쟁의 전범(典範), 포수 홍범도 장군의 60년 투쟁사 압축 - 방현석의 『범도』론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1. 포수에서 장군을 거쳐 극장 수위로 마감한 생

어떤 소설은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동시대의 조류와 무관하게 일 때도 있지만, 시류의 혼탁함에 복잡한 심경이 될 때도 있다. 방현석의 장편소설 『범도』 두 권을 읽으면서 드는 답답함이 필자를 짓누른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더더욱 숨이 막혀온다. 작가는 20세기 전후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와 현실의 관계를 질문하며 21세기의 후대 사람들이 올바른 자유와 독립의 감각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을 마무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범도』는 1권 ‘포수의 원칙’과 2권 ‘봉오동의 그들’로 부제가 구별되어 있지만, 1인칭 시점으로 그려낸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일대기이다. 10대 시절 구한말 포수로 활약하던 시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항일 독립투쟁의 치열한 노정(路程)이 소설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지만, ‘백무아’라는 여인을 이상적 타자이자 ‘정신적 지지대’로 삼아 무장 위’로서 생을 마감한 내용이 ‘에필로그’로 덧붙여지면서 대하소설 같은 도도한 흐름의 작품이 마무리된다.

2. ‘범 사냥 포수’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전설’로

1) 안중근과의 동지적 연대감

『범도』 1권은 <프롤로그 : 범 사냥>으로 시작한다. 1909년 조선을 떠나 연해주에서 여름을 보내던 범도는 ‘연해주 최고의 명사수’로 꼽히던 안중근과 범 사냥을 나간다. 농장 주인인 최의관과 안중근의

‘왼쪽 손가락의 잘린 약지’는 두 사람이 ‘동의단지회의 맹원’임을 말해준다. 비밀결사대 12인의 동의단지회가 정한 제1과업은 대한의 원수인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2대 조선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처단이고, 제2과업은 민족반역자 이완용과 박제순, 송병준의 처단이다.

이후 『범도』 2권 <13장 연해주에 그들>에서는 ‘프롤로그’에 이어진 안중근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안중근의 부대가 1908년 여름 홍대장과 연합작전을 펼치려다 괴멸당했으며, 안중근 역시 두만강 강변의 영산에서 적의 매복에 걸려 치명상을 입은 뒤, 회령에서 간신히 살아나와 밀림을 헤치고 걸어서 연추로 돌아온다. 범도는 안중근과의 마지막을 회상하면서 사미계를 받을 때 자신의 범문이었던 “홀로 가며 홀로 가는 것을 아는 자, 홀로 가는 자를 홀로 가게 하라.”라는 내용을 떠올리며 그가 가는 방향에 대한 고독한 동지적 연대감을 표명한다.

2) 포수에서 단독 여단의 활동까지

1883년 무렵 15세의 포수 홍범도에게 사수인 신포수는 농부와 어부가 사람의 질서 속에서 살지만 포수는 짐승의 질서 속에서 산다고 말하며, 군영에 들어가라면서 병정지원서에 두 살 올린 ‘17세, 양인 홍범’이라고 써낸다. 신포수와 분리된 범도는 17세에 ‘완전한 단독자’가 되어 ‘한 개의 여단’으로 독립한다. 이후 범도는 ‘수강 스님’으로 생활하던 시절 ‘단독 여단’으로서의 생을 압축하는 범문을 받는다. 지담스님의 범문은 “오직 홀로 가며 홀로 가는 것을 아는 자, 홀로 가는 자를 홀로 가게 하라. 할!”로 마무리되는데, 이 범문이 ‘나 홀로 여단’으로서 ‘혈혈단신’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설 운명임

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후 금강산 단발령에서 의기투합하게 된 선비 출신 김수협과 함께 3번의 매복 작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범도의 부대는 대원들이 42명으로 늘어나 여단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된다. 하지만 저격여단의 아군 전사 46명의 복수를 10배로 갚기 위해 왜군 460두가 필요하여 '단독 여단'으로 적을 제거하는 모습이 압축적으로 그려지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1907) 이야기와 함께 총이 포수의 생명이고 재산이기에 총포 반납을 거부하면서, '삼수와 갑산, 북청'의 세 포연대가 형제 결의를 맺고 '항일연합포연대'를 구성하여,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궤멸시킨 이후 파죽지세로 개마고원 일대를 누빈 이야기가 펼쳐진다.

3) 백무아에 대한 연정(戀情)의 마음

1884년 범도는 군영에서 민란을 진압하러 내려온 울산에서 동기 백무현이 사망하면서, 은반지 한 쌍을 여동생 백무아에게 대신 전해주게 된다. 오빠의 죽음 소식을 전한 이후, 백무아가 범도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은반지 하나를 끼워주자, 그때 19세 범도의 마음이 떨리고 흔들린다.

그러나 백무아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면서, 범도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조선에서 믿었던 유일한 남자"가 당신이며 "약자의 벗으로 사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이 양반과 침략자, 남자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단층을 남긴다. 백무아가 남겨준 단층 손잡이 왼쪽에는 'WFR(=홍을 위한 백)'가 손잡이 오른쪽에는 'WFJ(=하느님을 위한 백)'가 새겨져 있다. 범도가 무아에게 하느님만큼이나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각

인시켜준 것이다.

이후 1908년경 '아메리카합중국 해군성 정보국 요원'이 된 백무아는 자신이 조선에서 범도를 위해 일한다면 범도에게 "살아 있으라"는 말을 가만히 속삭인 뒤 떠나기도 하고, 1920년경에는 봉오동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군의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 문서를 보여주면서, 범도에게 자신보다 절대 먼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해방의 그 날이 밤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 그려지기도 한다.

4) 항일연합포연대의 투쟁과 해산

『범도』 2권 <10장 신화와 전설>에서는 범도가 '13도창의군'의 한양 진공 작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삼수성 점령 작전을 먼저 펼친 이야기가 그려진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아군 9명이 전사하지만, 사살한 적 265두, 노획한 적의 총기 294정, 탄환 160상자를 포획하는 전과를 올리게 된다. 단일 작전으로 거둔 최대의 전과이자 일본 육군의 신화인 조선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의 직할대를 상대로 거둔 소중한 승리이다. 이후 2개월 동안 치른 9번의 유격전에서 항일연합포연대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지만, 하세가와의 방침에 따라 포연대에게 협조한 주민들이 살해되고 마을이 불태워지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 결국 일본군 토벌대를 피해 항일연합포연대를 해산하게 된다.

5) 일제 강점과 독립 전쟁의 시작

1910년 경술년에 조선이 합병되고, 올라지보스

토크에서는 흩어진 13도의군을 다시 모아 대한광복군을 창건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연해주에서 탄생한 권업회의 최종 목표는 무장력을 보유한 '대한광복군 정부'의 수립이고, 그 정부의 실체가 될 대한광복군을 창설하고 훈련하는 일이 범도의 임무가 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연합국이 된 일본이 권업회의 해산을 요구하고, 테라우치 조선 총독은 대한광복군 정부 지도부의 체포와 추방을 요구한다. 범도는 다시 연해주를 떠나게 되고 북만주의 밀산 농장에서 3번째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한광복군의 입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부대의 이름과 체계를 대한독립군으로 개편한 뒤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훈춘에 들어선다. 그 사이 6차례의 국내 진공작전을 벌여 총진공 작전에 앞선 탐색전으로 무기 노획전에 성공한다. 이후 최진동의 농장이 자리한 봉오동 계곡에 들어서는 순간 범도는 천혜의 요새임을 감지한다. 상해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봉오동이 대한독립전쟁을 수행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총군영이라고 주장한다. 마침내 전쟁의 서막이 올라 '대한독립전쟁 출정식'이 열리고, 봉오동에서 일본군 사상자 120~150두의 대승을 거둔 부대는 왕청현에서 연결현으로 서진한다.

3. 역사와 현실의 상관성

방현석은 '작가의 말'에서 홍범도와 그의 사람들이 지닌 '도저한 매혹' 때문에 작품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기록한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부여된 '고단한 의무이자 매력과 특권'을 누리면서, '그들의 비애와 희열, 도전과 좌절'을 함께 그리며 그들 모두를 '심장이 뜨거운 인간'으로 되살리고 싶어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2021년인 '76주년 광복절'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홍범도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그로테스크하게도 친일파 장군들이 묻힌 묘역이 바로 위에 있다. 작가는 홍범도를 순정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그에게 승리는 짧았고 패배는 길었"으며, 승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날, 단 하루였고 남은 모든 날이 패배였다."고 기록한다. "하루의 힘으로 남은 모든 날의 패배에 맞서", "단독자로 살았던 그의 운명"을 압축한 것이다.

항일의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자들에게는 역사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항일 무장투쟁의 전공을 세운 장군들(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등)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판단은 우리 시대의 퇴행적 역사관을 보여주면서 일제의 식민사관이 여전히 기득권층의 특권 의식 내부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저한 역사의식을 배신하고 역행하는 잘못된 행정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할 후대의 책무임을 자각하게 된다. 🌧

오택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21세기 분학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표로 보는 남과 북 49

한반도와 호랑이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 대한하키협회 회장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호랑이가 떠오른다. 곰과 함께 단군 설화에 등장하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조선시대 민화 속 까치와 호랑이, 조선시대 장수의 무관복 가슴에 수놓은 호랑이 흉배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용맹하게, 때로는 친근하게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 온 동물이다.

남측에서 열린 1988서울올림픽과 2018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랑이와 흰 호랑이(백호)인 것만 봐도 한국인의 호랑이 사랑을 알 수 있다. 북측은 호랑이를 범이라고 부르는데, 3개 지역에 걸쳐 양강도 일대의 ‘백두산 조선범’, 자강도 일대의 ‘와갈봉 조선범’ 그리고 강원도 일대의 ‘추애산 조선범’으로 분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우표 속 호랑이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측의 우표에서는 1957년 30환 보통 우표에 처음 등장한 이래 66년 동물 시리즈, 87년 동물 우표 등 여러 번 등장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행

한 가장 고액 우표인 5000원권 우표도 ‘민화 까치 호랑이’에서 따왔다. 북측은 1962년 첫 우표 이래, 다양한 형식으로 발행해 왔으며, 근래에는 호랑이 보호와 관련된 우표들을 발행하고 있다. 남북 모두 눈길이 가는 점은 남측이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북측이 러시아와 공동우표를 발행했을 때 모두 호랑이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가의 상징물로 호랑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우리 강산에 살아온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다. 서울 인왕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처럼 한반도 전역에서 살았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남측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측 러시아와 중국 접경 일부 지역에서 야생 개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측 호랑이가 다시 번성하고, 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하는 복원 과정을 상상해 본다. 휴전선이라는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화합과 통일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말이다. 🐅

South Korea



- 1 최초 호랑이 우표 30환 보통우표 / 1957.7.5.
- 2 동물시리즈 우표 / 1966.12.20.
- 3 최고액권 5000원 보통우표 / 1983.12.1.
- 4 호돌이 우표 / 1985.3.20.
- 5 수호랑 우표 / 2017.11.1.



North Korea



- 1 북측 최초 호랑이 우표 / 1962.1.24.
- 2 러시아 공동우표 / 2005.6.1.
- 3 근역강산맹호기상도 / 2017. 3. 1
- 4 호랑이 입체우표 / 2019.4.30
- 5 국제범보호연단 / 2022.9.5.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협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기도 연천 평화 기행 두 번째 이야기

글·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태풍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과 DMZ. 멀리 북한의 4월5일탑이 희미하게 보인다.

1978년 애인과 함께 전곡 한탄강 변에서 데이트하고 있던 미군 병사에게 뭔가 이상한 돌들이 눈에 들어왔다. 유심히 돌을 살펴보던 병사의 눈에는 어느 자갈돌과 달리 가공한 흔적이 보였다. 돌을 수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적인 선사 고고학 전문가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보르도 교수에게 보냈다. 보르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었던

김원룡 교수에게 연락하였고, 김원룡 교수와 영남대학교의 정영화 교수에 의해 이 돌들은 놀랍게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판명되었다.

이 돌을 발견한 미군 병사는 동두천 기지 비상에 보대에 근무 중인 그렉 보웬(Bowen G.) 상병으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였다. 이 우연한 발견이 세계의 역사 학설을 새로 쓰는



1. 열쇠전망대에서 평화의 리본을 달고 있는 청소년들. 가장 감명을 주는 장소중 하나이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2. 연천 한탄강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모비우스 학설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계기가 되었다. 세계 고고학계에서 이전까지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모비우스의 학설이 정통이었다. 즉, 전곡에서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도를 기점으로 동아시아에는 양면을 가공하여 뾰족하게 만든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없고 한쪽 면만 가공한 찍개형 주먹도끼 문화권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서쪽인 유럽과 아프리카를 아슐리안 문화권이라 불렀다. 아슐리안은 프랑스의 생파술(St. Acheul) 지방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주먹도끼이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타원형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양쪽 면을 모두 고르게 손질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 이 학설을 ‘모비우스 라인’이라고 한다. 이 학설은 당시 동아시아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 열등한 전기 구석기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전곡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 이 학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주먹도끼는 강변의 돌 앞뒷면을 잘 다듬어서 끝이 날카롭고 타원형으로 날을 만든 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다. 이 주먹도끼는 베고, 자르

고, 찌르고, 가공하는 데 사용한다.

당시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다.

세계 역사를 바꾼 전곡 주먹도끼

그래서 주먹도끼를 흔히 “구석기시대의 맥가이버칼”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논밭으로 된 유적지에서 총 22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하였다. 발견된 유적들을 미루어 전곡리유적의 연대는 후기 구석기시대보다는 이른 30만 년 전 이전의 전기 구석기 문화로 보는 견해가 많다. 연천을 방문하면 구석기 축제와 구석기인들의 벽화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38선 표지석 바로 위에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을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울 수 있다. 구석기 유물이 많이 발견된 한탄강은 50만 년 전 신생대 제4기에 북한 평강 오리산과 680m 고지에서 여러 번에 걸쳐 화산폭발에 따른 용암이 흘러 만들어졌다. 또한 연천에는 거대한 고인돌이 산재해 있다. 고인돌을 만든 이들은 주먹도끼의 후예들인지

도 모른다. 코레일에서는 한동안 평화열차(DMZ Train)를 경의선과 경원선에서 운행하였지만, 지금은 운행이 중단되었다. 신망리역은 행정구역상 신서면 상리에 있다. 과거에 북한 땅이었던 이곳이 수복지구가 되면서 1954년 이곳에 미군이 100호의 지붕과 골조를 지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손수 만들었다. 이를 'New hope town'이라 불렀다. 이런 연유로 신망리(新望里)라고 부른다. 신탄리역은 연천군의 마지막 북단역으로 한동안 경원선 철도 중단점이었으나 지금은 철원의 백마고지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연천은 지금 들떠있다. 전철 1호선이 기존의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며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망리, 대광리, 산탄리에 이어 현재 경원선 종단역인 백마고지역까지의 운행은 기약할 수 없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접경지역을 만끽하는 기차여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연천역에는 과거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커다란 급수탑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 일대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로 여러 군데 총알 자국이 아직도 선명

하게 남아 있다. 남북으로 연결된 3개의 철도노선 중 경의선과 동해선은 연결되었지만, 경원선은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광복 75주년의 일환으로 한때 경원선 연결공사를 남한만 단독으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 시절 경원선을 타고 가다 철원역에서 금강산 전기철도를 타고 금강산여행을 갔었다.

분단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연천

연천은 북한에서 발원해 내려오는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차탄천이 지나가며 도감포에서 만나 본격적인 임진강이라는 이름으로 한강하구까지 흘러간다. 두 강은 과거 활발한 화산활동으로 흐른 용암으로 인해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와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만들었고, 2020년에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 연천군에는 재인폭포와 좌상바위를 비롯하여 9개 지질명소가 있다. 줄타기를 잘하는 재인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탐내 폭포에서 줄을 타

는 재인의 줄을 끊어 재인을 죽이고 부인을 탐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원님의 코를 물고 폭포로 뛰어내려 죽었다는 전설이 재인폭포에 있다.

횡산리는 연천의 유일한 민통선 마을이다. 홍수 시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필승교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기도 한다. 12m가 되면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발령된다. 2020년 8.68m를 기록하

였다.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공유하면 이러한 긴장감은 사라질 것이다.

연천에는 논밭길이나 임진강변, 오솔길 등으로 연결된 3개 코스의 평화누리길이 있다. 철책선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 아쉬움이 많지만, 대자연과 강변을 따라 걷는 즐거움이 있다. 고랑포길은 과거 민통선이었던 장남교에서 사미천을 거쳐 송의전까지 이어지는 임진강 물줄기를 따라 걸으며 여러 모양의 주상절리와 아름다운 임진강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임진적벽길은 고려 4왕과 신승겸 등 16공신을 모시는 송의전에서 임진강변을 걸으며, 동이리에서는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다. 허브빌리지를 거쳐 군남댐까지 이어진다. 송의전에는 왕건의 흔적인 어수정 등이 있다. 18.4km로 걸어 약식으로 동이리 주상절리길을 1시간 정도 걷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동이리에는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을 비롯해 사망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이 있다. 한동안 방치되었으나 지금은 주변이 조성되었고 화장장 굴뚝은 그대로 남아 있다. 통일이음코스는 로하스파크와 신탄리철도중단점을 거쳐 역고드름까지 28.2km로 분단의 시간만큼 긴 거리이다.

중면 횡산리 임진강 일대 민통선 안에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이 겨울을 보내는 철새도래지가 있다. 민통선 지역인 관계로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강과 습지, 농경지 등이 어우러져 있어 두루미들이 먹이를 구하고 천적을 피해 잠을 잘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매년 1,500여 마리의 두루미가 연천 임진강 일대를 찾고 있으며, 이곳에는 탐조대가 조성되어 있어 철새 탐조활동도 가능하다. 횡산리에는 연강갤러리가 있어 평화 테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연강갤러리와 연결된 출렁다리를 건너면 임진강평화

습지원이 있어 습지와 갈대와 각종 꽃을 감상할 수 있다.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임진강평화습지원은 지근거리에 있고, 연천 문화체육과(031-839-2141)로 출입 신청을 하면 된다.

태풍전망대는 휴전선과의 거리가 800m로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 초소까지 1,600m 떨어져 있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은 원래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2km씩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전진하여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되었다. 전망대에서는 북쪽이 훤히 내려다보이며, 임진강이 S자로 굽이쳐 흐른다. 전망대 앞 베틀고지, 노리고지에서는 과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북쪽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북한의 오장동 농장이 있고, 인근 귀촌리 마을의 주민들과 북한군의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군인들은 브리핑하고 있으나 수 없이 이곳을 방문한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임진강 멀리 희미하게 호수가 보이는데 이는 북한 4월5일댐 1호로 뒤에는 2호와 황강댐이 있다. 전망대에서 2km 떨어진 홍수 시 수위를 관찰하는 필승교가 있다. 동북쪽 대광리 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전망대인 열쇠전망대로 갈 수 있다. 경기도이지만 접근성은 철원보다 훨씬 멀어 보인다. 민통선 두 개의 검문소를 거쳐야만 전망대에 갈 수 있으며, 연천문화체육과에 신청하면 방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철책선에 평화의 리본을 달기도 하였고 철책선을 따라 걷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사라져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철책선에 리본을 달거나 철책선 따라 걷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분단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가장 감명을 주는 장면이었다. 봄에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쪽은 여기저기서 연기가 나고 마천리 주민들의 농사짓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통일인문학〉

김성민 | 건국대학교출판부 | 2023. 8

한반도 분단극복과 통일에 대한 인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통일인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분단은 체제의 분단만이 아니라, 남북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분단을 만들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통일인문학은 인문학적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남북 주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평화공존, 나아가 그들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추구한다. 이를 위한 통일인문학의 방법론은 ‘소통, 치유, 통합’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나온 학문적 실천의 결과물에 가깝다. 이 글들은 ‘통일연구의 인문적 모색’, ‘냉전과 이산, 식민화의 경험’, ‘코리아 디아스포라’, ‘분단의 상처와 치유’, ‘분단국가의 폭력’,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와 통합’, ‘통일인문학의 확장’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현실이 인문적 탐색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듯이 조금은 산발적이지만 그러한 현실에 맞는 인문학적 모색이 생산한 소중한 성과들이다.



압록강 뗏목 이야기 〈뗏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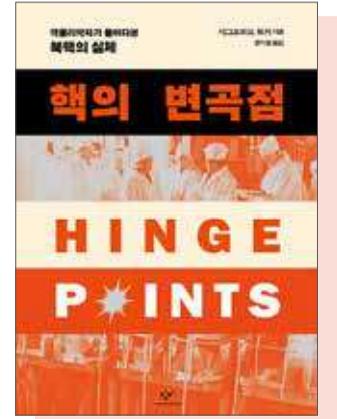
조천현 | 보리 | 2023. 10

압록강 이천 리 물줄기를 따라 지금도 뗏목이 뜬다. 저자는 1997년부터 조선과 중국이 맞닿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찾아가 강의 풍경과 강 건너 사람들 사진을 찍었다. 2004년 여름 압록강을 흐르는 뗏목을 처음 마주했다. 어느 날 마주친 뗏목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뗏목이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압록강 유역을 자주 다니며 뗏목이 흘러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오랜 시간 집념을 가지고 찍은 뗏목 사진 가운데 102점을 가려내 사진에세이 《뗏목-압록강 뗏목 이야기》로 출간했다. 뗏목은 봄에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 동흥 물동에서 첫 떼를 띄워 자강도 자성군 운봉노동자구 운봉호까지 운반한다. 작가의 집요함과 꾸준함으로 일곱 년 이 책에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뗏목의 모습과 뗏목과 함께 생활하는 뗏목꾼들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제 〈핵의 변곡점〉

시그프리드 헤커, 엘리엇 세르빈 | 창비 | 202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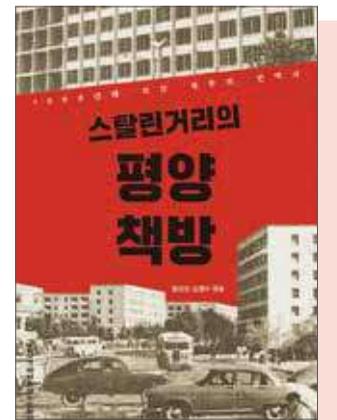
세계적 핵물리학자이자 핵무기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명예소장)가 수년에 걸쳐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방문하며 관찰한 사실과 통찰을 모아 엮어낸 북미 핵협상 역사의 복원이다. 이 책에는 헤커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놀라움, 충격, 경각심, 깨달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은 어떻게 핵폭탄 제조를 위한 자원을 그러모을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은 왜 미국의 핵 전문가를 불러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을까? 핵협상의 결정적 순간들에 대한 헤커의 통찰력 있는 분석은 북핵 위기의 해결에 단초가 될 쓰라린 교훈을 제시한다.



1960년대 이전 북한의 번역서 〈스탈린거리의 평양책방〉

한상언, 김명우 | 보한상연영화연구소 | 2023. 10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에서 개최된 중앙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단 라키비움 개관 특별전 “DMZ와 그 너머”를 통해 공개된 한상언영화연구소 소장 번역서를 정리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북한의 번역서는 1960년대 이전 발간된 238점의 자료이며 이 중에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삼리만” 등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창작된 대표적인 문학작품을 비롯해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 “모파상” 등 세계 문학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4호의 정답은 '자생의료 재단'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포토에세이

매호 실리는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과 글은 추석이 다가오기에 인상적이면서도, 지인과의 대화 소재로도 좋았습니다. '문이 열리면'이라는 조천현 PD의 글은 통일에 대한 감성이 잘 묻어나 많은 독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 북한 주민의 일상이 잘 표현 되는 사진들을 소개해주길 바랍니다. - 강현숙 경기 시흥시



권두인터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문화적 통일을 위한 준비라는 민현식 이사장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말길이 막힘없이 흐르면 일이 풀리고 겨레의 삶도 풀리고 기쁨의 통일도 이뤄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겨레 모두가 올바른 통일의 말, 겨레말을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민족통일을 향한 반가운 마중물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 이춘임 경기 포천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흥균 선생의 독립운동정신과 신광렬 선생의 긍휼지심을 철학으로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의 이야기를 잘 보았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전국 20여개 병원에서 현대 한의학차원에서 협진으로 100만 명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우면서 훌륭한 사업을 계승하고 계시는 후손들의 모습 또한 존경스러웠습니다. - 선아영 전북 군산시



새로운 시선 ⑩

통일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한반도 미래의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고 넓혀가야 한다는 말에 큰 공감을 하며,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박미경 경남 창원시



평화를 만나는 기행 ⑩

그동안 제가 살고 있는 '포천'에서 가까운 '연천'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접경지역이라 긴장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고량포 역사공원, 비룡전망대, 경순왕릉 등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차고 지금 당장 연천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돌아오는 주말에 가족들과 연천을 찾아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 박철수 경기 포천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민화협 25년, 새로운 비전 202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남북 간 화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정치적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남북한 당국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문화·종교·학술·청년·스포츠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민족 동질성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자연재난·감염병 등 초국경 신형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고,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